

시설기관을 이용 중인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요인

안 혜 영[†]

심리건강연구소

오 수 성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한 규 석

본 연구는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여수, 인천, 전주의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탈 성매매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 업소에 종사한 기간, 업소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식,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외상 관련 증상의 정도,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여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상태, 학력, 현재 직업유형, 현재 월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탈 성매매 여성이 업소로부터 당한 인권유린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원치 않는 성매매의 강요, 욕이나 협박 및 생리 중에 성매매 강요를 가장 빈번하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업소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방식이었다.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와 소극적 대처였고, 정신건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생활 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였다. 한편 소극적 대처는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와 정신건강 간 관계를 매개하였다.

주요어 : 탈 성매매 여성, 외상 관련 증상, 정신건강, 인권유린,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2010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혜영 / 심리건강연구소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30-1 2층

Fax : 062-512-0039 / E-mail : mehy22@naver.com

‘필요악’이라는 미명 아래 오랜 기간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었던 성매매 업소는 2000년 9월 군산시 화재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당시 성매매업소에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마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다. 2001년 2월에는 부산시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에는 또다시 군산시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당시 화재사건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김현선, 2002).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또 굳이 알려고 들지도 않았던 성매매 업소 내의 불편한 진실은 이렇게 여러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후에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함으로써 성매매 목적의 알선, 인신매매, 구금, 폭력 등을 처벌을 통해 대폭 축소시키는 한편 성매매 여성이 업소를 벗어나 자활할 수 있도록 의료적, 법적, 직업적,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김인숙, 2009; 최희경, 정경숙, 2009).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실시된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수가 2002년에 비해 줄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인터넷 및 기타 유형의 성매매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성매매 업소의 수가 증가하였다. 201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포항 지역의 성매매 여성 5명이 연쇄적으로 자살한 사건은 여전히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 심지어 그들의 가족 및 지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성매매 업소의 폭력 역시 여전한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최희경과 정경숙(2009)이 부산의 집결지 성매매 여성 289명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여성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는 29.4%에 그쳐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의 자활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업소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났고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를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성매매에 대해 가지는 뿌리 깊은 혐오감으로 인해 혹은 참혹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성매매의 실상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최현정, 2005; 하주영, 2001; Herman, 2003).

성매매 여성이 업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설사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 내에서 경험한 심리적 외상의 심각도가 너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폭력,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감금, 협박과 같은 심각한 외상적 사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나 연구들을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다(김미숙, 2007; 김현선, 2002; Farley & Barkan, 1998; Farley & Kelly, 2000; Hunter, 1994).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 후유증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학업, 직업, 대인관계와 같은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여러 적응

상의 문제를 겪는다. 이 후유증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대표적이며(APA, 1994) 이 외에도 다양한 신체화 증상, 우울, 정서 및 충동 조절의 곤란과 해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오수성, 신현균, 2008; 최현정, 2005). 특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단순외상 보다는 외상적 사건이 장기간 반복되는 복합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우울, 불안 및 PTSD와 같은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이지민, 홍창희, 2008; Courtois, 2004; Ford, 1999; Herman, 1992; Pelcovitz, van der Kolk, Roth, Mandel, Kaplan, & Resick, 1997; Terr, 1991; Tsutsumi, Izutsu, Poudyal, Kato, & Marui,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상적 사건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밝힌 국내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성매매 과정에서의 외상적 사건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 역시 성매매 여성이 경험하는 외상적 사건을 강간과 신체적 폭력만으로 국한시켜 너무 좁게 정의하거나(김현선, 2002) 성매매 여성이 경험하는 외상적 사건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외상적 경험의 실태만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김미숙, 2007). 또한 외상적 사건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는 상반된, 즉 인신매매, 감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험, 성폭행, 신체적 폭력과 같은 사건이 탈 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경우도 있어(김소연, 2005), 성매매 과정에서의 외상적 사건 경험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외상 자체의 심각성 외에도 성매매 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요인을 사건 이전 요인과 사건 이후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Buist, 1998; Freedy, Resnick, & Kilpatrick, 1992; 김현선, 2002에서 재인용; Williams & Poijula, 2002). 이들의 주장 중 일치되는 부분을 종합해 보면 사건 이전 요인에는 과거의 학대 경험, 연령, 성별, 가족요인, 불행한 생활사건 등이 포함되며, 사건 이후 요인에는 스트레스, 좋은 사회적 지지의 결여, 대처방법이 포함된다. 특히 사건 이후 요인은 성매매 피해 여성과 같이 외상적 사건이 이미 오래 전에 발생했고 심리적 어려움이 만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오수성, 신현균, 2008).

사건 이전 요인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시기에 경험한 성적, 신체적 폭력이 성매매 여성의 PTSD 증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더불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된 연령이 어릴수록 PTSD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 이 중 미성년 시기에 경험한 성적, 신체적 폭력과 PTSD 증상 간 유의한 관계는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으나(김현선, 2002; Ross, Joshi, & Currie, 1990) 업소에 유입된 연령과 PTSD 증상 간 관계를 밝히는 연구 결과들은 불일치되는 면이 많다(김소연, 2005; 이지민, 홍창희, 2008)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한편 성매매 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후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외상의 심각도와 사건 이전 요인을 다룬 연구보다도 더욱 부족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신혜영(2006)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을 평가한 연구를 통해 가족상담이 이들의 사회복귀에 긍정

적 효과를 미침을 밝힌 경우는 있으나 이 외의 사건 이후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5.18 피해자,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재향 군인들, 학대받은 여성, 홀로코스트 피해자, 다양한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해 실직, 가정 불화, 가족의 질병과 같은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생활 스트레스와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외상 후 정신건강이 나빠지며(오수성, 신현균, 2008; Fairbank, Schlenger, Caddell, & Woods, 1993)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안녕감 증가와 정신장애 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오수성, 신현균, 1998; 전철은, 현명호, 2003; Haden, Scarpa, Jones, & Ollendick, 2007; Sigal, Di Nicola, & Buonino, 1983; Stretch, 1985). 대처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심리적 고통이 줄어든다는 주장과(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Cohen & Roth, 1987; Roth & Cohen, 1986) 폭력이 만성화되고 심할수록 적극적인 행동은 줄어든다는 주장(Davis & Shinivasan, 1995; Mitchell & Hodson, 1983)이 있다.

그러나 탈 성매매 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자신의 외상적 경험을 쉽게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데다 경험하는 외상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는 바, 상기한 요인들이 탈 성매매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탈 성매매 여성들의 성공적인 자활과 적응

을 돕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을 밝혀 적절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고려해 볼 때, 탈 성매매 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건 이후 요인을 밝히는 연구 역시 시급해 보인다.

상기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탈 성매매 여성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을 요인으로 업소에 유입된 연령, 외상의 심각도, 외상에의 노출 기간,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다.

이중 외상의 심각도는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 성적 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인종차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같은 모든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김현선(2002)의 의견에 따라 성매매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성매매 업소 내에서의 외상 경험이 반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면을 고려하여 외상에의 노출 기간은 성매매 업소에 종사한 기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심리적 적응은 현재 외상 관련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와 정신건강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편의상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업소에 유입된 연령, 업소에 종사한 기간을 사건 관련 요인으로, 생활 스트레스,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식과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사건 이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쉼터, 상담소, 자활 기관 등의 시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탈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사건 관련 요인 및 사건 이후 요인과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여수, 인천, 전주에 소재하는 쉼터, 상담소, 자활 기관 등의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탈 성매매 여성 120명이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1세였고 대부분이 미혼이었다.

또한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은 평균 20.2세, 성매매 업소에 종사한 기간은 평균 72개월, 업소를 그만두고 경과한 기간은 평균 29.5개월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비율)		구분	사례수(비율)
현재 연령	20대 미만	5(4.2%)	결혼유형	미혼	73(60.8%)
	20대	79(65.8%)		기혼	25(20.8%)
	30대	26(21.7%)		이혼	14(11.7%)
	40대	8(6.7%)		사별	2(1.7%)
	50대 이상	2(1.7%)		동거	6(5%)
	계	120(100%)		계	120(100%)
학 력	무학	1(0.8%)	현재 직업유형	전일제근무	20(16.7%)
	초졸	21(17.5%)		아르바이트	1(0.8%)
	중졸	41(58.3%)		직업훈련시설이용	57(47.5%)
	고졸	55(34.2%)		무직	27(22.5%)
	대졸	2(1.7%)		기타	15(12.5%)
	계	120(100%)		계	120(100%)
현재 월소득	50만원 미만	58(48.3%)	성매매 시작 연령	15세 이하	18(15%)
	50~100만원	54(45%)		16~20세	65(54.2%)
	100~200만원	6(5%)		21~30세	31(25.8%)
	200만원 이상	2(1.7%)		31세 이상	6(5%)
	계	120(100%)		계	120(100%)
업소에 종사한 기간	24개월 이하	24(20%)	업소를 그만두고 경과한 기간	0~12개월	46(38.3%)
	25~60개월	41(34.4%)		13~24개월	25(20.8%)
	61~120개월	40(33.6%)		25~60개월	29(24.2%)
	121개월 이상	15(12.6%)		61~120개월	20(16.7%)
	계	120(100%)		계	120(100%)

도 구

간이정신진단검사

탈 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Revision; SCL-90-R)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신체화(SOM), 강박증(OC), 대인민감성(IS), 우울(DEP), 불안(ANX), 적대감(HOS), 공포 불안(PHOB), 편집증(PAR), 정신증(PSY)과 같은 총 9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정신건강 문제를 여러 정신과적 증상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를 통해 전반적인 정신건강수준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전체심도지수를 중심으로 탈 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을 알아보았다. T점수는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T점수 70점 이상은 비정상적임을 시사한다.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증상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에서부터 '아주 심하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8이었다.

생활 스트레스 질문지

탈 성매매 여성의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민규(1993)가 제작한 지각된 스트레스 질문지를 오수성(2006)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곤란, 직업 문제,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법적 문제, 배우자 또는 성생활, 가족과의 관계, 친구 또는 이웃과의 관계, 종교, 문화생활 또는 여과활동, 그리고 사회활동 등 10가지 문제영역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제영역에 따른 어려움이 지난 1개

월간 얼마나 심했는지 그 정도를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에서 '매우 심각했다'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한다(오수성, 2006).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3이었다.

사건충격 척도-수정판

탈 성매매 여성이 현재 경험하고 외상 관련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Weiss와 Marmar(1996)의 사건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를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과 최말레(2005)가 번안하여 수정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습적 사고, 회피 및 과각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증상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늘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6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탈 성매매 여성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척도(ways of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1987)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오수성(2006)이 수정, 보완한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의 추구, 정서 완화적 대처 및 소원적 사고 등 4개의 하위 요인이 있다. 김정희(1987)와 오수성(2006)의 연구에서처럼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의 추구를 적극적 대처 방식으로,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원적 사고를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평소의 스트레스 경험들을 처리하기 위해 각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다'까지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적극적 대처방식이 .82, 소극적 대처방식은 .68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탈 성매매 여성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UCLA 사회적 지지 질문지(UCLA Social Support Inventory; UCLA SSI)를 권정혜(1996)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수정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의 세 가지 긍정적인 지지 측면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측면 등 4가지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20개의 문항들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 최근 1개월 동안 본인을 얼마나 지지해 주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척도로만 구성된 긍정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였다.

인권유린에 대한 질문지

탈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정도를 측정하고자 김미숙(2007)이 개발한 질문지 내에서 인권유린의 정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3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자유로운 휴식 시간의 여부, 생리 기간 중 성매매 강요, 임신 중 성매매 강요, 낙태의 강요, 언어적 폭력, 감시 및 감금, 무리한 다이어트 요구, 일방적인 성매매의 강요, 성구매 남성으로부터의 폭력, 성병에의 감염 여부, 퇴폐쇼의 강요, 소개업자로부터의 폭력, 동료로부터

터의 폭력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내용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 ‘경험 없다’, ‘1번’, ‘2-3번’, ‘4-5번’, ‘6회 이상’까지 총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6이었다.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여수, 인천, 전주에 소재한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쉼터, 자활센터, 상담소 등의 시설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상자와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 실시 전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직원들에게 본 조사의 목적, 조사 내용 및 인터뷰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혼 상태, 학력, 현재 직업 유형 및 현재 월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 업소에 종사한 기간,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등의 사건 관련 요인과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등의 사건 이후 요인과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사건 관련 요인과 사건 이후 요인이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측정치의 기술통계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의 차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탈 성매매 여성의 결혼상태, 학력, 현재 직업유형 및 현재 월소득에 따른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 평균 차이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결혼상태, 학력, 직업유형 및 월소득은 모두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업소의 인권유린 실태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지는 업소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 2. 주요 변인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i>n</i>	<i>M</i>	<i>SD</i>
시작 연령	120	29.10	7.24
업소에 종사한 기간	120	72.00	54.51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120	18.66	9.57
생활 스트레스	120	20.94	10.79
적극적 대처방식	120	26.76	6.66
소극적 대처방식	120	19.60	3.40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120	42.21	13.40
외상 관련 증상	120	24.03	26.76
정신건강	120	53.38	13.70

알아보기 위하여 탈 성매매 여성이 업소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내용과 각 인권유린을 1회 이상 경험한 인원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탈 성매매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인권유린은 원치 않는 성매매의 강요, 업주로부터의 욕이나 헐박, 생리 중예의 성매매 강요 순으로 나타났는데, 원치 않는 성매매의 강요를 당한 경우는 83.3%, 업주로부터 욕이나 헐박을 당한 경우는 79.2%, 생리 중에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는 75.8%에 달하였다.

사건 관련 요인, 사건 이후 요인과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의 관계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 성매매 업소에 종사한 기간, 업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와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외상 관련 증상과 관련 변인들 간 상관을 보면, 소극적 대처와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여, $r=.40, p<.01$,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외상 관련 증상이 많았다. 또한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r=.37, p<.01$, 인권유린을 많이 당할수록 외상 관련 증상이 많았고, 생활 스트레스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r=.24, p<.01$, 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외상 관련 증상 역시 많았다. 반면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 $r=-.03, ns$, 업소에 종사한 기간, $r=-.13, ns$, 적극적 대처, $r=.02, ns$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r=-.13, ns$ 는 외상 관련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신건강과 관련 변인들 간 상관을 보면, 생활 스트레스와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여,

표 3. 결혼상태, 학력, 직업유형 및 월소득에 따른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의 평균(표준편차)

		외상 관련 증상				정신건강		
		<i>n</i>	<i>M</i>	<i>SD</i>	<i>F</i>	<i>M</i>	<i>SD</i>	<i>F</i>
결혼 상태	미혼	73	26.14	27.54		55.27	14.18	
	이혼 및 사별	16	22.81	25.06	.64(<i>p</i> =.53)	50.19	11.07	1.82(<i>p</i> =.17)
	기혼 및 동거	31	19.71	26.00		50.55	13.34	
학력	중졸 미만	22	14.23	17.34		48.36	10.64	
	중졸	41	25.00	26.12	1.91(<i>p</i> =.15)	52.44	12.52	2.68(<i>p</i> =.07)
	고졸 이상	57	27.12	29.56		55.98	15.06	
직업 유형	전일제 근무	20	17.45	23.99		50.55	13.84	
	직업훈련	57	25.93	26.55	.91(<i>p</i> =.41)	53.42	13.20	1.69(<i>p</i> =.19)
	무직	27	26.78	27.30		57.78	14.89	
월소득	50만원 미만	58	24.14	27.64		54.84	14.42	
	51~100만원 미만	54	23.46	25.88	.07(<i>p</i> =.94)	52.57	12.65	1.01(<i>p</i> =.37)
	100만원 이상	8	27.13	29.47		48.13	15.10	

표 4. 인권유린의 항목 및 각 인권유린을 1회 이상 당한 인원수

인권유린의 내용	사례수(%)	<i>M</i> (<i>n</i> =120)	<i>SD</i> (<i>n</i> =120)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	70(58.3)	1.50	1.54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	91(75.8)	2.60	1.67
임신 중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	27(22.5)	.57	1.22
낙태를 강요당하였다.	31(25.8)	.52	1.04
욕을 듣거나 협박을 당하였다.	95(79.2)	2.60	1.61
외출을 못하도록 감시나 감금을 당하였다.	66(55)	1.64	1.74
무리한 다이어트를 요구받았다.	55(45.8)	1.27	1.58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100(83.3)	2.78	1.53
성구매자로부터 욕설, 폭행, 강간을 당하였다.	84(70)	1.87	1.52
성병에 감염되었다.	58(48.3)	1.00	1.30
퇴폐쇼를 강요당하였다.	54(45)	1.42	1.74
소개업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	26(21.7)	.47	1.06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2(18.3)	.41	.99

표 5. 사건 관련 요인, 사건 이후 요인과 탈 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 간 관계

	성매매 시작연령	종사한 기간	인권유린 의 정도	생활 스트레스	적극적인 대처	소극적인 대처	긍정적 지지	외상관련 증상	정신 건강
성매매 시작 연령									
종사한 기간	.08								
인권유린의 정도	-.29**	.17							
생활 스트레스	-.06	-.13	.24**						
적극적인 대처	.13	.20*	.15	-.08					
소극적인 대처	.09	.08	.19*	.29**	.28**				
긍정적 지지	-.08	.06	.11	-.17	.36**	.10			
외상관련증상	-.03	-.13	.37**	.24**	.02	.40**	-.13		
정신건강	.03	-.06	.23*	.47**	-.17	.39**	-.14	.53**	

* $p < .05$, ** $p < .01$

$r=.47$, $p<.01$, 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정신 건강이 나빴다. 또한 소극적 대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r=.39$, $p<.01$,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정신건강이 나빴고,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r=.23$, $p<.05$, 인권유린을 많이 당할수록 정신 건강 역시 나빴다. 반면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 $r=.03$, m , 업소에 종사한 기간, $r=-.06$, m , 적극적 대처, $r=-.17$, m ,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r=-.14$, m , 는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은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r=-.29$, $p<.01$, 성매매를 이룬 나이에 시작할수록 인권유린을 더 많이 당하였다.

외상 관련 증상에 대한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의 예측력

외상 관련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표 6.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의 외상 관련 증상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표

모형	예측변인	β	t	R^2	ΔR^2	ΔF
1	소극적 대처	.40	4.69***	.15	.15	22.01***
2	소극적 대처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35 .29	4.19*** 3.47**	.23	.08	12.01**
3	소극적 대처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	.33 .27 .08	3.79*** 3.21** .97	.23	.08	.94

** $p < .01$, *** $p < .001$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은 상관의 크기에 따라 소극적 대처, 인권유린의 정도, 생활 스트레스 순서로 투입하였고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세 변인 중 소극적 대처, $\beta=.33, p<.001$, 와 인권유린의 정도, $\beta=.27, p<.01$, 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총 변량의 23%를 설명하였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의 예측력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생활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은 상관의 크기에 따라 생활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 인권유린의 정도 순서로 투입하였고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세 변인 중 생활 스트레스, $\beta=.37, p<.001$, 와 소극적 대처, $\beta=.27, p<.01$, 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총 변량의 29%를 설명하였다.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의 소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가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소극적 대처, 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가 소극적 대처와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와 정신건강 간 관계에 소극적 대처가 매개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바, 소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인권유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극적 대처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 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되거나 사라지는 동시

표 7.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표

모형	예측변인	β	t	R^2	ΔR^2	ΔF
1	생활 스트레스	.46	5.61***	.22	.22	31.45***
2	생활 스트레스	.38	4.62***	.29	.07	11.20**
	소극적 대처	.28	3.35**			
3	생활 스트레스	.37	4.36***	.29	.00	.75
	소극적 대처	.27	3.21**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07	.86			

** $p < .01$, *** $p < .001$

표 8. 소극적 대처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단계		β	t	R^2	F
1	인권유린 → 소극적 대처	.19	2.02*	.03	4.09*
2	인권유린 → 정신건강	.23	2.52*	.04	6.32*
3	인권유린 → 정신건강	.14	1.59	.16	11.70***
	소극적 대처 → 정신건강	.36	4.20***		

* $p < .05$, *** $p < .001$

에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가 탈 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가 매개변인인 소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beta=.19, p<.05$, 독립변인인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가 종속변인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23, p<.05$.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소극적 대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beta=.36, p<.001$,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졌다, $\beta=.14, n.s.$. 그러므로 소극적 대처는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업소에 유입된 연령, 업소에 종사한 기간,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 생활 스트레스,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식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와 같은 여러 요인 중 시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을 가장 잘 예측

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결혼상태, 학력, 현재 직업유형, 현재 월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기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은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83.3%가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79.2%가 욕을 듣거나 협박을 당하였으며 75.8%는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70%는 성구매자로부터 욕설, 폭행 및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8.3%가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도 자유롭게 쉴 수 없었고 55%는 외출을 못하도록 감시나 감금을 당했다고 보고하여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의 폭력과 압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관련 선행 연구 결과(김미숙, 2007; 김현선, 2002; Farley et al., 1998; Farley et al., 2000; Hunter, 1994)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사건 관련 요인 중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는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과 업소에 종사한 기간은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성매매 관련 특성

중 성폭력 경험과 정신건강은 유의한 상관이 있으나 업소에의 유입연령 및 유입기간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지지되었다(김소연, 2005). 이를 통해 업소에 유입된 시기나 종사한 기간보다는 업소에서 어떤 외상을 경험했고 이러한 외상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공포감, 무력감 및 고통감을 안겨주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탈 성매매 여성의 현재 정신건강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은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이른 나이에 업소에 유입된 여성일수록 업소로부터 인권유린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업소의 폭력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신, 타인 및 세상에 대한 표상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경험은 이들의 사고방식을 왜곡시키고 병리적인 성격 특성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중 54.2%가 10대에, 15%는 15세 이하에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성매매가 청소년 내에서 급증하고 있다(유은주, 2005)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었던 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연구 및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사건 이후 요인 중 생활 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는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바, 생활 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정도를 통해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특히 소극적 대처와 관련하여 이지민과 홍창희(2008)는 업소 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을 경험한 성매매 여성은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안전한 환경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업소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다시 피해자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록 본 연구를 통해 생활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 외상 관련 증상, 정신건강 간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었으나, 선행 연구를 고려해 볼 때 업소 내에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 경험이 성매매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소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들 변인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후속 연구 및 성매매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탈 업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탈 성매매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개입 등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오수성, 신현균, 2008; 전철은, 현명호, 2003; Haden et al., 2007; Sigal et al.; Stretch, 1985),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자체가 극히 적은 면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10개 척도 중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경제적 곤란과 직업 및 법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스트레스로 확인되었던 바,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와 탈 성매매 여성의 정신

건강 간 관계를 밝히는 보다 많은 연구와 더불어 이들의 대인관계를 회복시키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도 필요해 보인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와 소극적 대처가 탈 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 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는 정신건강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유린을 당한 정도가 탈 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극적 대처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 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과 외상 후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탈 성매매 여성의 보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개입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매매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동시에 시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탈 성매매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후유증을 설명하는 일부 변인들의 역할을 규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많은 탈 성매매 여성이 업소 내에서 상당한 인권유린을 당하였고 업소를 그만 둔 후에도 심리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성매매 피해여성은 현재 지원시설을 통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하는 외상적 사건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외상 경험을 노출하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대처 기

술을 보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들의 자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의 마련 역시 시급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지원시설, 자활센터, 상담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전체 탈 성매매 여성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매매 업소를 그만 둔 후에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더 이상 이용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활에 성공한 탈 성매매 여성은 자활에 성공하지 못한 탈 성매매 여성과는 상당히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와 같은 보호요인과 심리적 적응 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역시 이러한 제한점과 관련이 있을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일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기지를 발휘하거나 외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은 사건충격 척도에서 외상의 정도를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가 탈 성매매 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보유한 대상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상기한 보호 요인의 역할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탈 성매매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 및 사건 이후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적응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 영역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대상까지 포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혜 (1996). 임신 중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33-43.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미숙 (2007). 집결지내 여성과 탈업소 여성의 탈성매매 요인에 관한 연구: 10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연 (2005). 성매매 현장에서의 경험이 탈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 (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한국아동복지학, 30, 34-157.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혜영 (2006).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사회복지를 위한 심리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의 평가 연구: 성매매를 탈피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 오수성 (2006). 5·18 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5·18 기념재단.
- 오수성, 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유은주 (2005). 성매매 청소년의 체험 연구. 청소년학연구: 12(3), 143-163.
-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레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3), 303-310.
-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 이지민, 홍창희 (2008). 성매매 여성들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53-580.
- 전철은, 현명호 (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63-776.
- 최현정 (2006). 만성적 외상에 대한 해리 경험이 성매매 여성의 외상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희경, 정경숙 (2009).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탈 성매매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1), 413-435.
- 하주영 (2001). 성매매는 범죄인가? 시대와 철학, 13(2), 325-35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s.)*. Washington, DC: Author.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uist, A. (1998). Childhood abuse, postpartum depression and parenting difficulties: a literature review of associa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2(3), 370-378.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Cohen. L. J., & Roth, S. (1987). The psychological aftermath of rape: Long-term effec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cove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5, 525-534.
- Courtois, C. (2004).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4), 412-425.
- Davis, L. V., & Shinivasan, M. (1995). Listening to the voices of battered woman: What helps them escape violence. *Affilia*, 10, 49-69.
- Derogatis, L. R. (1977). *SCL-90-R (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Fairbank, J. A., Schlenger, W. E., Caddell, J. M., & Woods, M. G.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 B. Sutker, & H. E. Adams (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Farley, M., & Barkan, H. (1998). Prostituti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PTSD. *Women & Health*, 27(3), 37-49.
- Farley, M., & Kelly, V. (2000). Prostitu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medical and social science literature. *Woman & Criminal Justice*, 11, 29-64.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e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Ford, J. D. (1999). Disorders of Extreme Stress Following War-Zone Military Trauma: Associated Featur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Comorbid but Distinct Syndr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1), 3-12.
- Haden, S. C., Scarpa, A., Jones, R. T., & Ollendick, T. H. (200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injury: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for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187-1198.
- Herman, J. (1992).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to political terror*. NJ: Basic Books.
- Hunter, S. K. (1994). Prostitution is cruelty and abuse to women and children. *Michigan Journal of Gender and Law*, 1, 1-14.
- Mitchell, R. E., & Hodson, C. A. (1983).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health among battered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629-654.
- Pelcovitz, D., van der Kolk, B. A.,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1997).

-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 of extreme stress(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1)*, 3-16.
- Ross, C. A, Joshi, S., & Currie, R. (1990). Dissociative experiences in the general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547-1552.
- Roth, S., &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Sigal, J. T., Di Nicola V. F., & Buonino, M. (1983). Grandchildren of survivor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3*, 207-312.
- Stretch, R. H. (198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U. S. army reserve Vietnam and Vietnam-era vetera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935-936.
- Terr, L.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0-20.
- Tsutsumi, A., Izutsu, T., Poudyal, A. K., Kato, S., & Marui, E. (2008). Mental health of female survivors of human trafficking in Nepal. *Social Science & Medicine. 66*, 1841-1847.
- Weiss, D. S., & Marmar, C. R. (1996). The 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n J. P. Wilson, & T. M. Keane (Eds.), *Asse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pp.399-41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illiams, M. B., & Poijula, S. (2002). *The PTSD workbook*. New Harbinger Publications, Inc.
- 원고접수일 : 2011. 11. 09.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1. 07.
게재결정일 : 2012. 1. 12.

Factors that Predict Trauma-related Symptoms & Mental Health among Women Acquitted from Prostitution in Rehabilitation Agency

HyeYoung An

SooSung Oh

Gyuseog Han

Psychological Health Institute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factors that predict trauma-related symptoms and mental health among women acquitted from prostitution. The subjects were 120 women who previously worked as sex workers. Women in various rehabilitation agencies in metro-regions such as Gwangju, Daegu, Daejeon, Pusan, Yeosu, Incheon, and Jeonju participated in this questionnaire study.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scales measuring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at the start of prostitution, time period of sexual work in brothels, degree of human rights abuses, stress level, active coping strategy, passive coping strategy, positive social support, degree of trauma-related symptoms, and the SCL-90-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s trauma-related symptoms and mental health were not affected by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marital status, education, current job type, or current monthly income. The women acquitted from prostitution were found to have experienced forced unwanted prostitution, verbal violence, and forced prostitution during menstruation most frequently. It was shown that degrees of human rights abuses, stress level, passive coping strategy, trauma-related symptoms, and mental health were positively related. The significant predicting factors of trauma-related symptoms were the degree of human rights abuses and passive coping strategy, and the significant predicting factors for mental health were stress level and passive coping strategy. Meanwhile, passive coping strategy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human rights and mental health.

Key words : women acquitted from prostitution, trauma-related symptoms, mental health, human rights abuses, stress level,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